

한글 텍스트의 읽기 쉬움

Nova De Hi

2012년 8월 17일

예전부터 나는 한자가 약간 섞인 글이 순한글로만 된 글보다 읽기 쉽다고 주장해왔다. 이야말로 나 자신이 시대에 뒤진 퇴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이요 요즘 세상에 씨알머리도 먹히지 않을 주장일 것이다. 만약 예문 A가 예문 B보다 더 잘 읽어진다면 자신의 정신적 연령이 오륙십대임을 인정해도 좋으리라.

이 글의 목적은 예문 C를 보이기 위해서이다. 대체로 실사는 크게 조사나 어미는 작게 하여 한글 텍스트에 크기 중심의 리듬을 준다면 독서 속도도 향상되고 그 대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이 아이디어는 원래 gromob 교수께서 작년 겨울에 보여주신 것이다.

과연 그러한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거니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간단하게 실사와 허사를 구분 표기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명령 형식으로 하자니 타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간단한 테스트 문단조차 만들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간단히 원래 “잘라지지 않는 공백”을 의미하는 ~ 문자를 여기에 대응시켜 보았다. 예를 들면

지조~와 정조~를 논~한다는 것~부터가 오늘~에
와 같이 입력하면

지조와 정조를 논한다는 것부터가 오늘에
로 나오게 한 것이다.

생각건대, 대체로 대명사, 조사, 용언의 어미, 보조용언, 관형사, 부사 따위는 작게 하고, 명사와 용언의 어간을 크게 하는 정도로 빠르게 단락의 대의를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글 읽기의 속도도 조금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손쉬운 한국어 구문 분석기 같은 것이 나와서 이러한 구분과 마킹을 자동으로 해준다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예문 A:

하기는. 志操와 貞操를 論한다는 것부터가 오늘에 와선 이미 時代錯誤의 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긴 그렇다. 왜 그리냐 하면, 志操와 貞操를 지킨다는 것은 不自然한 일이고, 時勢를 拒逆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寡婦나 홀아비가 改嫁하고 再娶하는 것은 生理的으로나 家庭生活로나 自然스러운 일이므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改嫁와 再娶를 지극히 當然한 것으로 承認하면서도 어떤 寡婦나 鰥夫가 사랑하는 옛 짝을 위하여 改嫁나 續絃의 길을 버리고 一生을 마치는 그 節制에 대하여 讚嘆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다. 普通 사람이 能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했대서만이 아니라 自然으로서의 人間의 本能을 理性과 意志로써 超克한 그 精神의 높이를 보기 때문이다. 貞操의 高貴性이 여기에 있다. 志操도 마찬가지다. 自己의 思想과 信念과 良心과 主體는 일찌감치 集어던지고 時勢에 따라 아무 權力에나 바꾸어 붙어서 口腹의 걱정이나 兪고 名利의 勢道에 參與하여 꺼덕대는 것이 自然한 일이지, 못나게 쫓을 부린다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짓밟히는 것처럼 不自然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 얼핏 들어 우선 말은 되는 것 같다.

예문 B:

하기는. 지조와 정조를 논한다는 것부터가 오늘에 와선 이미 시대 착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긴 그렇다. 왜 그러냐 하면, 지조와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부자연한 일이요, 시세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부나 홀아비가 개가하고 재취하는 것은 생리적으로나 가정 생활로나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개가와 재취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승인하면서도 어떤 과부나 환부가 사랑하는 옛 짝을 위하여 개가나 속현의 길을 버리고 일생을 마치는 그 절제에 대하여 찬탄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했대서만이 아니라 자연으로서의 인간의 본능고를 이성과 의지로써 초극한 그 정신이 높이를 보기 때문이다. 정조의 고귀성이 여기에 있다. 지조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사상과 신념과 양심과 주체는 일찌감치 집어 던지고 시세에 따라 아무 권력이나 바꾸어 붙어서 구복의 걱정이나 덜고 명리의 세도에 참여하여 꺼덕대는 것이 자연한 일이지, 못나게 쪼를 부린다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짓밟히는 것처럼 부자연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 얼핏 들어 우선 말은 되는 것 같다.

예문 C:

하기는, 지조와 정조를 논한다는 것부터가 오늘에 와선 이미 시대 착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긴 그렇다. 왜 그러나 하면, 지조와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부자연한 일이요, 시세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부나 홀아비가 개가하고 재취하는 것은 생리적으로나 가정 생활로나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개가와 재취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승인하면서도 어떤 과부나 환부가 사랑하는 옛 짝을 위하여 개가나 속현의 길을 버리고 일생을 마치는 그 절제에 대하여 찬탄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했대서만이 아니라 자연으로서의 인간의 본능고를 이성과 의지로써 초극한 그 정신의 높이를 보기 때문이다. 정조의 고귀성이 여기에 있다. 지조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사상과 신념과 양심과 주체는 일찌감치 집어던지고 시세에 따라 아무 권력이나 바꾸어 붙어서 구복의 걱정이나 덜고 명리의 세도에 참여하여 꺼덕대는 것이 자연한 일이지, 못나게 쪼를 부린다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짓밟히는 것처럼 부자연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 얼핏 들어 우선 말은 되는 것 같다.